전북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금연성공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병원 외래1관 1층
TEL : 063) 859-2400 ~ 2410 FAX : 063) 859-2414

전주매일 CMYK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6월 30일 목요일 (음 5월 26일) 제159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민선6기 2주년 전북도정 성과

주력산업 발전 초석 다졌다

민선 6기 송하진 도정이 2주년을 맞이했다.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북도'를 내세우며 출발한 '송하진 호'의 지난 2년은 주력분야의 발전 초석을 다진 기간으로 평가되며, 남은 2년은 2020년을 기점으로 대도약 하는 전북도를 위한 기간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2면〉

29일 전북도청 접견실에서 송하진 도지사가 민선6기 2주년 맞이 성과 및 후반기 도정운영 방향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

◇지난 2년 '내발적 발전 전략' 운영… 핵심 도정의 초석 마련

송 지사는 지난 2년에 대해 "일회성 혹은 이슈성이 아닌 먼 미래를 내다본 '내발적 발전'을 통해 '생동하는 전라북도'의 초석이 다져진 기간이었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새만금 공항의 국가계획 반영', '탄소법 통과' 등 희망에만 머물러 있던 현안들을 현실로 바꾸는 굵직한 성과들을 만들어냈다.

이런 성과는 전북을 바라보는 내·외부 인식을 바꿔 '도민 행복도 광역 1위(한국일보)', '살기좋고 힘이 나는 지역 전국 2위(sbs)'를 기록, '2015년 지방이전기업 투자촉진보조금 전국 최고(177억원)로 기업 몰리는 전북도(한국경제신문)'로 재발견되는가 하면, '여행만족도 2년 연속 전국 2위(문체부)'를 달성했다. 또한 2016 시도지사 공약이행 평가에서는 최고 등급을 받기도 했다.

특히 도는 ▲탄소산업육성법 제정을 통한 '100년 먹거리 탄소산업' 발전의 제도적 근간 마련 ▲삼락농정을 통한 농업의 미래 재창조 ▲여행만족도 전국 2위의 토탈관광 토대 구축 ▲새만금 공항 국가계획 반영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 등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등이 전북발전 초석 마련을 위한 남다른 의미가 있는 성과로 평가한다.

◇앞으로 2년 '2020 전북 대도약'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간

송 지사는 민선 6기 남은 2년에 대해"반환점을 돈 지금, 앞으로 2년은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0 전북 대도약'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중요하고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내발적 전략 운영

새만금 공항 국가계획 반영
탄소법 등 희망 현안 현실화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결실

실제 '전북도 주요사업 2020 로드맵'에 따르면 2020년에는 탄소특화 국가산단 완공, 새만금 동서2축·남북2축 완공, 새만금 농업용지 및 신항만 완공, 새만금공항 및 금융타운 착공 등 전북 발전을 견인할 대규모 사업들이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도가 내세운 2020년 주요 지표 달성목표는 생생마을 1,000개소(현 376개) 달성,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기업 150개사 달성(현 6개사), 도 대표관광지 입장객 1,455만명(현 818만명), 금융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5,534억원의 투자 증가와 3,522억원의 GRDP 증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등 굵직굵직한 목표들이 세워져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최우선으로 그 동안 꾸준히 추진해 왔던 ▲농생명산업을 통해 K-Food 등 농업의 미래 개척 ▲한국적인 관광 1번지 특화 계획 ▲탄소소재 상용화 실현 ▲지속적인 전북형 일자리 창출 ▲도민들의 행복체감도 제고 ▲도내 SOC 확충으로 시군 동반성장 실현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이를 향해 정진해 나갈 계획이다.

남은 2년동안의 도정 방향

'2020 전북 대도약 실현' 총력
농업 개척·관광 1번지 특화
탄소소재 상용화 등 추진키로

송 지사는 "도민과 함께 더욱 강하고 힘 있게 전북발전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그동안 3대 핵심 사업에 뿌려진 씨앗이 꽃피울 수 있도록 성장망은 키우고 도민의 생활에서 체감하는 행복망은 넓히면서 멀리 내다보고 지혜롭게 대응하는 스마트한 도정을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

한은, 내일 임시 금통위

한국은행은 7월 1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한은은 임시 금통위 회의를 통해 자본확충펀드와 관련된 안건을 의결할 방침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8일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해 한은이 대출 형태로 10조원을 지원해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업 구조조정이 가시화된 조선·해운업에 대한 부실 여신으로 인해 재무건전성이 악화한 KDB산업·한국수출입 은행 등 국책은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한은법상 금통위원 7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해야 자본확충펀드가 공식 출범할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무리 없이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 매일 INDEX

3면 여야 3당 비대위체제로

12면 수지미술관, 지역 대표 문화공간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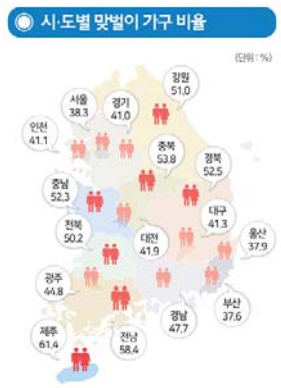
도내 10가구중 3곳 '나 혼자 산다'

배우자 있는 가구 절반 '맞벌이한다'

통계청 조사결과

1인가구비율 30.6%
독거노인 증가가 한 몫

맞벌이 가구 비율 50.2%
전국평균보다 6.3%p 높아



도내 10개 가구 중 3가구는 1인 가구이며 배우자가 있는 가구 2곳 중 1곳은 맞벌이 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을 발표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2015년 10월 기준 1인 가구는 21만5,000가구다. 2014년 10월에 비해 7,000가구가 늘어난 것이다. 1인 가구 비율은 30.6%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1인 가구가 증가한데는 독거노인 증가가 한 몫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1인 가구를 연령별로 분류한 통계는 없지만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 인구는 많아지는데 사회 통념 상 부모 부양의 의무는 과거보다 희석된 것이 독거노인이 늘어난 원인으로 보인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작성한 '201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여성의 기대여명은 85.5년으로 남성(79.0년)보다 6.5년이나 길었다.

부부가 자녀와 떨어져 살다가 남성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여성 노인이 혼자 살게 되는 것이다.

시도별 1인 가구 고용률은 전북이 49.5%로 부산(45.9%), 대구(49.3%)와 함께 전국 하위권을 차지했다.

도내 배우자가 있는 가구 2곳 중 1곳은 맞벌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배우자가 있는 44만 가구 중에서 맞벌이 가구는 22만1,000 가구(50.2%)로 조사됐다. 하지만 2014년 22만4,000 가구보다 0.6%(3,000가구) 줄었다. 그래도 전국 평균 43.9%보다 6.3%포인트 높은 수치여서 도민의 삶이 그만큼 팍팍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1인 가구 현황에서 여성 비율이 더 높은 것은 고령화 사회에 홀로 사는 여성이 증가한 것과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내일부터 소방민원, 인터넷에서 처리 가능

7월 1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과 같은 각종 예방 소방민원을 '대국민 소방민원 사이트'(www.mpss.go.kr/somin)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29일 국민안전처는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하반기부터 바뀌는 주요 변경제도사항을 소개했다.

지금까지 소방관서에 방문해야만 각종 예방민원서류를 제출할 수 있었으나 다음달부터 집에서 간편하게 소방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소방민원센터에서는 자신이 신청한 민원의 진행 상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소방관서에서 즉시 처리한다.

안전처 관계자는 "소방민원센터는 각종 유관시스템(안전처 홈페이지·소방민원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해 소방시설 등의 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방소방 정보화 구현에 앞장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